〈법화경〉 오랜 보존 위해 '다라니'를…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㊸ 법화경과 다라니

그때 약왕(藥王)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 드러내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통달하거나 경전을 쓰면 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8백만억 나유타 항하 모래알 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그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얻는 복이 많겠는가? 많지 않겠는가?"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의 사구게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뜻을 알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공덕이 매우 많으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경전을 설하는 이에게 다라니주(陀羅尼呪)를 주어, 이로써 그들을 수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곧 주를 설하였다.

아니 마니 마녜 마마녜 지례 자리제 샤마 사리다위 선제 목제 목다리 사리 아위사리 상리 사리사예 악사예 아기니 선제 사리 다라니 아로가바사 바자빅사니 녀비제 아변다라녜리제 아단다바례 수지 구구례 모구례 아라례 바라례 수가차 아삼마삼리 못다비기리구제 달마바리차제 싱가열구사녜 바사바사수지 만다라 만다락사야다 우루다 우루다교사라 악사라 악사야다야 아바로 아마야나다야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신주는 62억 항하사의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바이오니, 만약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훼방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 이 모든 부처님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석가모니부처님이 약왕보살을 찬탄해 이르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약왕이여, 그대가 이렇게 법사를 걱정하여 지켜 주려고 이 다라니 설했으니,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이 많으리라."

〈법화경〉에도 다라니가 설해져 있다. 제 26품이 '다라니품' 인데 약왕보살이 먼저 〈법화경〉을 설하는 이에게 다라니 신주(神呪)를 주어 수호하겠다고 서원을 말하고 다라니를 설하자 이어 용시보살과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나찰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의 다라니가 설해져 있다. 〈화엄경〉을 두고 '화엄만다라' 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법화경〉은 '법화다라니' 라는 말을 쓴다. 물론 〈능엄경〉에 설해져 있는 '능엄신주' 는 더욱 유명하다. 〈법화경〉의 다라니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는 자와 남을 위해 설해 주는 자를 옹호해 주는 주문이다. 주술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법화수행자가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원래 다라니는 밀교의 수행법으로 불가사의한 공능을 은밀하게 얻어내는 신비로운 것이다. 다라니를 수지하는 것을 주력(呪力) 수행이라 말한다. 약왕보살이 설하는 다라니 신주를 62억 항하의 모래알 수의 부처님들께서 설했다고 밝혀 밀종(密宗)의 출처가 부처님에게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불교 신앙에는 주술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기도의식용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천수경〉에는 '심묘장구대다라니가' 가 핵심인데 다라니를 수지 독송하게 하여 깨달음에 나아가게 한다.

원래 다라니(dharani)는 불 · 보살에 대한 염원 등을 함축하고 있는 경전의 어구나 구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어원의 뜻을 밝혀보면 모든 것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비유하여 말하면 깨지지 않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서 새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총지(總持)라고 번역하고 능차(能遮)라고 번역한다. 능차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뜻이다. 물론 다라니마다 각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술적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법화경〉에 다라니가 설해져 있는 까닭은 부처님의 실교 법문인 〈법화경〉을 길이길이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법화경〉이 보존 유지되어야 부처님법이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말세에 와서 〈법화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는 점을 은연중 부각시키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자발적 선의 지닌 '자리이타' 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㊸ 생명-의료윤리와 불교윤리의 적용

현대 사회에서 크게 발달한 응용윤리학에서는 윤리적 난제(難題)들의 본질과 그 해결책의 기준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응용윤리학에서는 규범윤리학의 주요한 이론을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한다. 아울러 응용윤리학은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응용윤리의 여러 분야 가운데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는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일 것이다. 초창기에는 생명윤리학(Bio Ethics) 혹은 의료윤리학(Medical Ethics)으로 불렸지만, 점차 생명-의료윤리학(Bio-Medical Ethics)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생의윤리학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제기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 첨단 과학기술과 유전공학, 진료행위와 환자의 인격, 의료자원의 분배제도이다.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는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의 정의에 관련된 본질적인 물음을 내포한다.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생명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물음은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어느 시점부터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다. 생명의 시작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그 끝인 죽음과도 연결된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등이다.

우리의 삶은 첨단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졌던 기술이 그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기술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사회적 환경이다. 마찬가지로 의료윤리도 좁게는 의료인과 환자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넓게는 의료인의 사회적 환경이 문제가 된다.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자율권과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선의의 간섭주의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과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는 소득의 배분과 직결되어 있어서 빈부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까닭에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때로는 불살생계를 고수하는 것보다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교 경론에서 불교윤리의 토대를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이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서 구체적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적용해야 한다.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업(業), 계율(戒律), 자비(慈悲), 보살(菩薩) 윤리, 선교방편(善巧方便) 등을 불교윤리의 토대로 삼아서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불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올바른 행위, 즉 자발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⑲ 성불을 이루는 지관수행

진여본성, 마음 본체 · 우주 근원

진여심 의식(意識)으로 전변(轉變)

불자 여러분! 진여본성의 마음이 무명에 훈습되면 청정성과 지혜성이 오염된 마음으로 변하여서 지혜가 의(意)식(識)으로 전변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온갖 허망한 망상과 분별을 일으키며 망경계를 집착하고 구속되어 갈애와 애욕을 일으키며 억한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어 망심이 있는 한, 마음에 분별과 집착이 있는 한, 마음이 진여본성과 상응하지 못하는 불각의 무명이 있는 한, 생사윤회의 고통은 끝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염된 무명심이 아뢰야식 속에 업식종자(業識種子)가 되어서 념념히 상속되어지기 때문에 무명이 있는 한 생사윤회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여본성의 청정한 본래 지혜가 의식으로 전변하게 되면, 마음은 망념과 망상분별을 일삼게 되고, 삼독심을 일으키며 마음 내면을 5가지 덮개로 온통 뒤덮어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의 5가지 덮개라는 것은 내면세계의 의근에서 생기는 탐욕, 진에, 수면, 도회, 의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덮개가 마음 내면을 뒤덮게 되면 악한 업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5가지 덮개를 제거해야만 모든 악업과 8만4천 가지 번뇌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

불자 여러분! 마음은 심(心) · 의(意) · 식(識)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전오식(前五識) · 제6의식 · 제7말나식 · 제8아뢰야식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문에서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대상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할 때마다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오고 감이 없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마음의 본체이며 생명의 근본이며 우주의 근원입니다.

〈화엄경〉 60권에서 "삼계는 오직 일심뿐이다. 마음 밖에 다른 법은 없다." 고 교설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진여본성의 불생불멸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화엄경〉에서 삼계유심의 견처를 드러내고 있는 사구게가 있는데, "만약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계의 성품이 모두가 마음이 지은 것임을 관해야 한다.(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삼계유심(三界唯心)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유심(唯心)이 바로 진여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유심(唯心)' 이라는 이 말은 현재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마음과는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불자 여러분! 〈마조도일선사광록〉에 보면 마조 스님도 "무릇 색을 보는 바는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自心)이 아니라 색으로 인한 까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두 가지 마음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생멸하는 마음으로 대상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색(色)' 이라는 경계를 눈이 인식했을 때 생겨나는 '안식(眼識)' 의 마음을 생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귀로 들을 때나 코로 냄새 맡을 때 등 육근으로 접촉하여 인식하는 마음은 모두 생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량분별과 지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서 제7말나식과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종자식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식(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의 마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 마조선사가 대중에게 이렇게 설법하였습니다. "그대들 모두는 각자 자심(自心)이 부처임을 믿으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달마 대사가 남천축국으로부터 와서 중국에 이르러 상승법인 일심의 법을 전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고 또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심지를 도장 찍듯 확인해 주었다. 그대들이 전도된 생각으로 믿지 않을까 두렵도다. 이 일심의 법은 각자 자신에게 있다"고 이 진여본성의 마음을 자심(自心)이라고 하며 부처라고 교설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경자 신축년의 지구촌 코로나와
임인년 이후의 세기적 변화에 대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서의 처방 및
비밀한 가르침에 대한
놀라운 해설서 !!!



일곱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 미륵부처님이 왜 일곱단계를 거쳐서 오시는가?
-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명과, 법신불의 광명은 어떤차이가 있는가?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 선재동자가 삼아승지겁을 뛰어넘어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수많은 천상의 신계와 인간은 어떻게 소통하나?
- 법계가 바뀌어 광명천지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각 권 정가 **20,000**원 (이만원)

문의 010-3514-708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 지 : 법성 (속명 : 임다경)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황정2길 35번지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